

마무리 캠프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감독은 고민중... 왜?

일본 미야자키 휴가지에서 진행했던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캠프가 28일 종료된다. 성공적으로 캠프가 마무리 됐지만 험난한 2015시즌을 앞두고 선수단 통합과 전력 최대화라는 고민은 남았다.

김여울 기자 KIA 미야자키 캠프를 가다

젊은 선수들 잠재력 폭발... '30일의 기적' 완성

? 스프링 캠프까지 분위기 어떻게 있나 주전과의 조화·사기 감안 명단 구성은

성공적이었던 KIA의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 그래서 생긴 고민이 있다. 이번 캠프는 체력과 생각하는 야구를 목표로 강도 높게 진행했다. 흥행전, 두산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중간중간 훈련 성과를 점검하기도 했다. 캠프는 성공적이었다. 빠르고 강해진 선수들의 움직임에 '30일의 기적'이라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선수들의 성장세는 코칭스태프가 놀랄 정도다. 과감하게 뭉수 있는 판이 깔리자 선수들은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의욕이 넘친 선수들은 김기태 감독이 주문한 100% 이상의 것을 보여주며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선수단의 실력과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코칭스태프에게는 '어떻게 이 분위기를 이어갈까?'하는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 주전들과의 조화, 스프링 캠프 구성이라는 큰 고민이 주어진 것이다.

이번 캠프는 백업·유망주 위주로 구성됐다. 주전급 선수들이 일본 돛토리현과 광주 등지에서 회복훈련 및 자율 훈련을 하는 동안 젊은 선수들이 있던 미야자키에서는 대변화의 시간이 있었다. 그 바탕에는 김 감독의 리더십이 있었지만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의 영향도 컸다. 선수들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스스로 변화를 느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얻었다. 실력을 때어놓고 보면 마무리 캠프 선수단이 한 발 앞서 내년 시즌을 출발했다.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주전들이 강한 변화의 흐름에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스프링 캠프 명단을 꾸리는 것도 고민이다. 누구 하나 때어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선수들은 이번 캠프를 열정적으로 보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1군 그라운드 는 멀리에 있다. 스프링 캠프부터가 높은

벽이다. 스프링 캠프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는 '바늘 구멍'이 앞에 있다. 실력과 함께 선수단의 사기와 조화를 생각해야 하는 만큼 코칭스태프는 머리와 마음이 아픈 고민을 시작했다. 김 감독 앞에는 남겨져 있던 50%의 전력을 한데 묶어 100%를 만들어야 하는 힘든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캠프의 강한 변화의 바람이 한국까지 불어 나간 것은 긍정적이다. 달린 캠프 분위기와 김 감독의 리더십은 광주 선수단에도 고스란히 전달됐다.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에 남은 선수들도 긴장감 속에 묵묵히 움직였다. 김 감독 앞에는 남겨져 있던 50%의 전력을 한데 묶어 100%를 만들어야 하는 힘든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캠프의 강한 변화의 바람이 한국까지 불어 나간 것은 긍정적이다. 달린 캠프 분위기와 김 감독의 리더십은 광주 선수단에도 고스란히 전달됐다.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에 남은 선수들도 긴장감 속에 묵묵히 움직였다. 김 감독은 "핑계 없이 선수들의 전력을 키워내라"고 코치진에게 엄명을 내렸다. 핑계 없고, 열의 없는 강도 높은 훈련과 육성을 주문하면서도 '효율성'은 빼놓지 않았다. 김 감독은 "무조건 선수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베테랑들이 체력적인 부분은 젊은 선수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 강하게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요령껏 적용하라"고 주문을 했다. 성공적인 캠프 뒤에 남은 고민으로 KIA의 겨울은 더욱 뜨거워 전망이다. wool@kwangju.co.kr

“자발적 훈련 분위기 가장 큰 성과”

김기태 감독 일문일답

KIA 타이거즈 마무리 캠프 선수단이 28일 귀국한다. 선수단은 지난달 29일 일본 미야자키 휴가지에 캠프를 꾸린 뒤 체력과 기술강화 그리고 팀 리빌딩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호랑이 군단'의 새 사령탑 김기태 감독은 "자발적인 훈련 분위기가 가장 큰 성과다. 내년 시즌 의욕적으로 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시간이었다"고 이번 마무리 캠프를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캠프를 마친 소감은. ▲힘든 상황에서 성실하게 캠프를 마친 선수들과 코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캠프에 도착해 며칠간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몰라 난감했지만 선수들과 대화하고 훈련하면서 거리를 좁혔다. 재미있게 훈련했고, 선수들도 잘 따라왔다. 내년 시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좋은 시간이었다. -캠프 성과는. ▲선수들이 훈련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운동에 매달리면서 집중력 있는 훈련 분위기가 조성된 게 가장 큰 성과다. 이런 분위기가 캠프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에게도 전파돼, 스프링 캠프에서도 집중력 있게 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캠프에서 선수들에게 주문한 것은. ▲팀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했다. 실력이 뛰어나도 팀을 위하지 않는 선수에게 기회는 없다. 두 번째로 야구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했다. 그라운드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진지하게 야구를 하라는 뜻이다. 이와 함께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야구를 주문했다. 생각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도 록 했다. 마지막으로 핑계를 대지 말라고 했다. 코치들에게도 마찬가지 주문을 했다. 전력이 떨어지는 선수의 능력을 키워 주는 게 코치의 임무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수들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다. -군 입대한 선수들의 공백이 큰데. ▲안치홍과 김선빈의 빈 자리가 상당히 크다. 이번 캠프에서 최용규, 강한을, 박찬홍 등 여러 선수를 테스트했다. 현재

키스톤 콤비 찾기는 빈 도화지에서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이다. 이번 캠프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 -마무리 캠프 최고의 선수를 꼽는다면. ▲한 명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잘했다. 여러 선수가 고르게 발전했다. 걱정했던 것보다 선수들의 상태가 좋았다. 백업 선수들과 어린 선수들이 기대 보다 많이 발전해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 -향후 계획은. ▲선수단 파악의 1차 작업이 끝난 셈이다. 아직 할 일이 많다. 주전급 선수들에 대한 파악을 마치고 팀 전력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스프링 캠프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 시즌 팬들이 즐겨 볼 수 있는 야구를 펼쳐 보이겠다. wool@kwangju.co.kr



86억 SK 최정 'FA 신기록'

계약금 42억 등 4년 계약...삼성 윤성환 80억 '잔류'

SK의 내야수 최정(27)이 한국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역사를 새로 썼다. FA 최대어로 꼽힌 장원준(29)은 롯데의 거액 제의를 뿌리치고 시장에 나왔다. 최정은 FA 원 소속구단 우선 협상 마감일인 26일 SK와 4년간 총 86억원에 재계약했다. 계약금만 42억에 달하는 FA 신 기록이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해 롯데 자

이언츠 강민호의 4년간 75억원이었다. 최정을 역대 최고 대우로 붙잡은 SK는 외야수 김강민(32)과 조동화(33)까지 각각 4년간 총 56억원, 4년간 총 22억원에 놀라 않았다. 삼성도 내부 FA 가운데 핵심 전력으로 분류된 윤성환(33)-안지민(31)에게 '돈보따리'를 풀었다. 삼성은 윤성환에게 프로야구 역대 투수

최고 FA 계약인 4년 80억원을 안겼다. 이로써 윤성환은 지난해 장원삼(31·삼성)이 4년 60억원으로 투수 FA 최고액 기록을 세운 지 1년 만에 다시 기록을 바꿨다. 리그 최고의 불펜 투수로 평가받는 안지민은 4년 총 65억원에 사인했다. 2011년 정대현(롯데)이 기록한 불펜 투수 최고액(4년 3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초대형 계약

이다. 만능 내야수 조동찬(31)도 4년 28억원에 삼성 잔류를 택했다. 이에 앞서 외야수 박용택(35)은 LG와 4년 총액 50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50억원은 LG의 FA 계약 역사상 공식적인 최고 금액이다. 한화는 유일한 FA인 김경연(32)을 3년간 8억5000만원의 조건으로 잔류시켰다. 이로써 FA를 신청한 19명 중 원 소속구단과 계약을 마친 선수는 윤성환-안지민-조동찬(이상 삼성), 최정-김강민-조동화(이상 SK), 박용택(LG), 김경연(한화)을 포함해 8명이다. 그러나 FA 최대어로 꼽힌 장원준은 롯데 자이언츠의 거액 몸값 제의를 뿌리치고

FA 시장에 나왔다. 롯데가 밝힌 제시액은 최정을 넘어서는 역대 FA 최고 금액인 4년 88억원이었다. "시장에 나서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장원준은 희소 가치가 높은 좌완 선발에 젊은 나이라는 이점까지 더해져 FA 시장에 나오자마자 상한가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투수 송은범(31)·포수 차일목(33·이상 KIA) 등 계약이 불발된 나머지 FA 11명은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원 소속 구단을 제외한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3일까지 계약이 불발되더라도 전체 구단과의 협상을 거쳐 그라운드에 설 수 있다. /연합뉴스